

아버지의 육아휴직과 가족건강에 관한 통합적 문헌고찰

배은정¹ · 김효영^{1,2} · 김 수³ · 권은지^{1,4}

연세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대학원생¹, 연세의료원 세브란스병원 간호사²,
연세대학교 간호대학 교수³, 육군학병군사학교 위탁생⁴

Paternity Leave and Family Health: An Integrative Review

Bae, Eunjeong¹ · Kim, Hyoyeong^{1,2} · Kim, Sue³ · Kwon, Eunji^{1,4}

¹Graduate Student, College of Nursing,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Seoul

²RN, Severance Hospital, Yonsei University Health System, Seoul

³Professor, College of Nursing, Yonsei University, Seoul

⁴Student, Army Cadet Military School, Goesan, Korea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review the literature on paternity leave and family health over the last 10 years. **Methods:** Nine studies that met the criteria were selected from sixty-four studies. General characteristics, study design, and major findings about paternity leave were analyzed using an established analysis framework. **Results:** From the integrative review, paternity leave was found to affect the health of fathers, mothers, and children, as well as family health and gender equality. The father's paternity leave resulted in an increase in mothers' breast feeding rate, a decrease in maternal depression, a reduction in parenting stress, a reduction in all-cause mortality of men, feelings of instinctive paternal love, increased parenting, skills, and positive parent-child relationships. It was interpreted that paternity leave had a positive effect on the mental and physical health of individual members of the family. **Conclusion:** This study provides the basic data on the health effects of father's parental leave on the family system in a holistic view. In addition, this study proposes the direction of paternity leave and family health research and policy needs.

Key Words: Paternity, Parental leave, Family, Health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여성의 사회 참여도가 과거에 비해 증가함에 따라 맞벌이 부부의 비율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2017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여성 고용 비율은 50.2%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며, 맞벌이 비율은 44.9% 이다. 그러나 여성의 사회 참여도 증가가 곧 가정 내의 평등한 역할 분담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Han과 Yoo (2007)의 연구에서와 같이 근로자의 성 역할 태

도가 전반적으로 양성 평등적이고, 여성의 사회 진출에 대해서는 허용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으나, 자녀 양육은 여성의 몫이며 일-가정 갈등 발생 시 여성의 직무를 제한해야 한다는 모순적인 연구결과가 확인되었다. 이는 육아는 여성의 임무라는 인식이 강하고, 그에 따라 여성들에게 요구되는 역할은 점차 과중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예이다. 이에, 취업 여성들은 출산 후 비자발적으로 직장에서 이탈하게 되거나 의도하지 않은 단시간의 근로를 하는 등 일과 가정 사이에서 이중부담을 겪고 있다 (Lee & Choi, 2011).

따라서 연구자들은 여성의 역할 과중의 원인을 찾기 위해 노력했고, '아버지의 육아휴직'이 여성의 역할 부담을 해소할 수

주요어: 아버지 육아휴직, 가족, 건강

Corresponding author: Kwon, Eunji

College of Nursing, Yonsei University, 50-1 Yonsei-ro, Seodaemun-gu, Seoul 03722, Korea.

Tel: +82-2-2228-3380, Fax: +82-2-392-5440, E-mail: kwon303102@yuhs.ac

투고일: 2018년 5월 9일 / 심사완료일: 2018년 6월 4일 / 게재확정일: 2018년 6월 5일

있는 요소 중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육아휴직 제도란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계속적으로 고용을 보장 받으면서 일정한 기간 동안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신청하는 휴직 제도를 의미한다(Yoon, 2016). 2018년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 19조 1항, 2항에 ‘육아휴직이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할 수 있는 휴직이며, 그기간은 1년 이내로 하고 1회에 한하여 분할 사용할 수 있으며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다(국가법령정보센터, 2016).

2016년 고용 노동부의 통계에 따르면 육아휴직 사용 인원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남성 근로자의 수는 여성에 비해 이용 실적이 미비하다고 하였다. 2016년 전체 육아휴직자 중 남성의 비율은 8.3%로, 육아휴직자의 절대 다수인 92% 가량은 여성의 몫인 것이 현 주소이다. 또한, 아버지의 양육참여 시간은 어머니에 비해 매우 짧다. Kim (2012)의 연구에서는 유아 아버지가 양육에 참여하는 시간은 평일 1.3시간, 주말 4.1시간인 반면, 취업모의 양육참여시간은 평일 3.5시간, 주말 7.5시간으로 맞벌이 부부이지만, 아버지와 어머니의 자녀양육 참여시간이 평일은 약 3배, 주말은 2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는 것이다. 이처럼 ‘아버지 육아휴직’ 제도를 실제 사용하는 비율이 매우 낮고, 실질적으로 양육에 참여하는 시간이 짧기 때문에, 이를 유도할 보다 확실한 유인책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자들은 아버지의 육아휴직의 긍정적 영향을 밝혀내어, 육아휴직 제도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뿐만 아니라 본 연구는 아버지의 육아휴직이 가족 '전체'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하고자 한다. 지금까지의 국내의 연구의 대상자는 대부분 여성이었다. Won (2005)의 연구에서, 일·가정 양립지원정책의 형식적 목표와 실질적 운용간의 간극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Lee 등(2011)은 한국 민간기업 근로여성을 대상으로 육아휴직 활용 패턴의 영향 요인을 분석하였다. 고용의 안정성이 육아휴직의 사용여부, 기간 및 육아휴직 사용 후 복직 가능성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Kim (2013)은 미취학 자녀를 둔 취업 여성을 대상으로 일·가정 양립정책 인지도와 이용의향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직장환경적 특성에 따라 인지도 및 이용의향에 미치는 영향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대 중반 이후에서야 남성의 입장을 다룬 연구들이 발견되었다. Lee 등(2008)은 아버지의 남성육아휴직 수용태도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파악하였다. 그 중 학력이 높을수록, 맞벌이 남성과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경우, 남성의 육아휴직 활동을 수용하는데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Lee 등(2009)의 연구에 따르면, 아버지의 양육태도가 자녀의 사회성 발달과 자아개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Seo 등(2014)의 연구에서는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 감소 및 아동의 사회성 발달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그간의 연구들이 아버지, 어머니, 자녀의 건강을 개별적으로 나누어 보는 관점이었던다면, 본 연구는 가족을 하나의 체계(system)로 보는 관점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가족을 체계적(system) 관점으로 보는 것은 가족을 ‘기능적’ 차원에서 평가할 수 있게 한다. 이는 ‘구조적’ 차원에서 가족의 건강성을 보는 것과는 달리, 가족의 속성을 포괄적이고 연속적으로 평가할 수 있게 하고(Eo, 1995), 사회체계와의 역동성을 관찰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이러한 포괄적 관점은 사회 정책 변화를 이끌어 가는데 있어서 보다 유용할 것이라고 예상된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최근 10년간 아버지의 육아휴직을 주제로 한 국내·외 연구를 조사하여 연구설계, 연구대상, 연구목적, 주요 변수 및 결과, 논의 양상을 분석함으로써 현재까지 이루어진 아버지 육아휴직 관련 연구의 동향을 파악하고, 우리나라에 적용할 방안을 제시하고, 기존의 연구에서 개별 평가되었던 가족건강을 체계적 ‘가족건강’으로 통합하여 분석하고자 하는 데에 있다.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아버지 육아휴직이 가족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통합적 문헌고찰이다.

2. 문헌의 선정기준 및 배제기준

‘아버지 육아휴직은 가족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핵심질문으로 구성하여 통합적 문헌 검색을 시행하였다. 선정기준은 아버지 육아휴직(paternal leave) 관련 연구, 가족(family), 건강(health) 관련 연구이며, 배제기준은 전문을 얻을 수 없는 연구와 한국어나 영어로 출판되지 않은 연구의 경우 제외하였다.

3. 문헌 검색과 선정

1) 문헌 검색

문헌 검색과 선정은 2018년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시행하였다. 2008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최근 10년간 출판된 국내·외 학술 논문을 대상으로 검색하였다. 문헌 검색은 전자데이터베이스 검색 방법을 이용하였다. 국외 데이터베이스의 경우 ‘paternity leave’ AND ‘health’ AND ‘family’을 조합하여 설정하였고 국내 데이터베이스의 경우 ‘아버지 육아휴직’ AND ‘건강’ AND ‘가족’을 조합하여 설정하였다. 국외 데이터베이스는 PubMed, CINAHL, PsycINFO, EMBASE, Cochrane에서, 국내 데이터베이스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RISS)에서 검색하였다.

2) 문헌 선정

문헌 검색을 통하여 총 64편의 논문이 검색되었고, 이 중 중복된 논문 33편, 전문을 얻을 수 없는 논문 4편을 제외한 총 27편의 제목과 초록을 검토한 결과 10편이 제외되었고 남은 17편의 원문을 검토하여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9편의 논문을 통합

적 고찰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문헌 선정의 전 과정은 연구자 3인의 협의를 거쳐 함께 진행하였다. 따라서 연구자 간의 신뢰도나 일치도는 별도로 계산하지 않았다(Figure 1).

4. 자료수집

문헌 검색을 통해 검색된 모든 학술 논문은 문헌관리 프로그램(EndNote X7)에 입력하여 관리하였다. 최종 선정된 문헌으로부터 문헌의 특징 및 아버지 육아휴직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연구자 3인이 매트릭스를 작성하였다. 매트릭스에는 저자 및 연도, 연구설계, 연구대상자, 연구목적, 주요 변수 및 결과 항목이 포함된다.

5. 자료분석

본 연구의 목적인 아버지 육아휴직과 가족건강간의 관계를 정리하기 위하여 통합적 문헌 고찰(integrative literature review)을 활용하였다. 고찰 방법은 각각의 학술 논문을 저자 및 연도, 연구설계, 연구대상자, 주요 변수, 결과로 분류하여 매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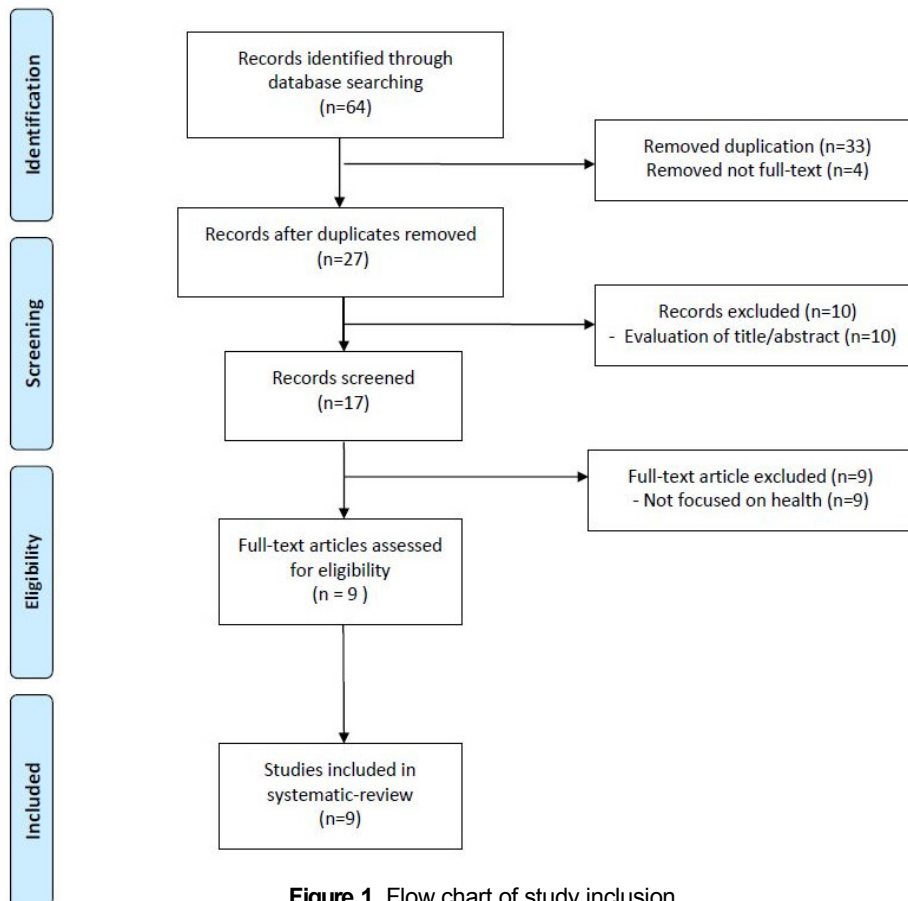


Figure 1. Flow chart of study inclusion.

릭스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연구자 3인이 독립적으로 자료를 추출하였으며, 이후에 통합하여 확인하였다. 일치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3명의 연구자가 각각 추출한 자료를 교차 검토하였으며, 각각의 학술 논문을 저자 및 연도, 연구설계, 연구대상자, 주요 변수, 결과로 분류하여 매트릭스를 작성하였다. 분석 대상 논문의 통합된 자료는 매트릭스 표로 제시하였다. 최종적으로는 매트릭스 내의 세부내용을 재 논의하여 도출된 결과와 분석 대상 논문의 적절성을 확인하였다.

연구결과

1. 통합적 문헌고찰 대상 논문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에서 분석한 9개의 연구를 국가별로 살펴보면 스웨덴 3편(33.4%), 미국과 한국이 2편(22.2%), 영국과 6개의 아시아 태평양 국가(방글라데시, 캄보디아, 중국, 인도네시아, 파푸아뉴기니, 스리랑카)의 연구가 각각 1편(11.1%)이었다. 9개의 연구에 대한 대상자는 아버지만을 대상으로 한 논문이 5편(55.6%), 어머니만을 대상으로 한 논문이 1편(11.1%), 부모(어머니, 아버지 모두)를 대상으로 한 논문이 2편(22.2%)이었으며, 연구참여자가 없는 국가 정책에 대한 분석적 연구가 1편(11.1%) 있었다. 연구설계는 양적 연구가 6편(66.7%)으로 그 중 횡단적 연구가 2편, 종단적 연구 4편이었으며, 질적 연구는 2편(22.2%)이었다. 연구의 일반적 특성의 분석 결과는 Table 1과 같다.

2. Paternity leave and Family health 주요 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는 각각의 문헌에서 도출된 아버지 육아휴직이 가족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총 3가지로 구분하였다. 첫 번째 영향은 가족 구성원에 따라 아버지 육아휴직과 어머니, 아버지, 자녀의 건강으로 구분되며, 두 번째 영향은 체계적 차원에서 아버지 육아휴직과 가족 건강이었다. 세 번째 요인은 인식적 측면에서 아버지 육아휴직이 성 평등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기술하였다.

1) Paternity leave and father's health

아버지의 육아휴직과 아버지의 건강 간의 관계를 설명한 논문은 총 5편이었다. 아버지의 건강은 사망률, 정서적 측면으로 제시되었다. 아버지의 육아휴직은 건강 측면에서 우울, 삶 만

족도, 자살 생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연구결과가 있었다. 그 외에도, McClain 등(2017)의 아버지의 육아휴직이 남성이 부모 역할을 하는데 있어 용기와 지지를 준다는 연구와 Ko (2015)의 육아 휴직으로 부성애에 눈을 뗐다는 연구결과가 있었다. Månsdotter 등(2010a)에서는 육아휴직을 포함한, 아버지의 양육 참여는 알코올 관련 사망률, 자살률, 기타 폭력적 사망률, 심혈관계 질환 사망률을 비롯한 모든 원인의 남성 사망률을 감소시킨다는 연구결과가 있었다. Yoon (2016)에서는 아버지들이 육아휴직을 통한 양육 경험이 누적되어 양육에 능숙한 아버지로 변화되어 갔다는 연구결과가 있었다.

2) Paternity leave and mother's health

아버지의 육아휴직과 어머니의 건강 간의 관계를 설명한 논문은 총 3편이었다. Flanking 등(2011)에서는 어머니의 건강은 모유수유 시행율과 정신 건강으로 제시되었다. 아버지 육아휴직을 쓰지 않는 경우, 영아의 첫 1년의 모유수유를 시행하지 않는 것과 유의하다($p < .01$)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이는 영아기의 아버지의 육아참여는 어머니가 모유수유를 유지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또한, Redshaw 등(2013)과 McClain 등(2017)의 연구에서는 배우자의 육아휴직이 없을 때, 여성은 'unwell'을 느끼며, 우울감이 유의미하게 증가했다는 결과가 있었다.

3) Paternity leave and children's health

아버지 육아휴직과 자녀의 건강 간의 관계를 설명한 논문은 국외 논문 1편과 국내 논문 1편으로 총 2편이었다. Flanking 등(2011)에서 아버지의 육아휴직에 따른 자녀의 신체적 건강 측면은 아버지 육아휴직을 쓰지 않는 경우, 어머니와 영아의 2, 4, 6개월에서의 모유 수유 시행율이 떨어지는 것을 연구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Yoon (2016)에서는 아버지 육아휴직자들의 면담을 통해, 육아휴직을 통한 양육 경험이 누적되어 아버지 건강으로 이동 자녀와의 적극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긍정적 부모-자녀관계를 구축한다는 연구대상자의 답변을 확인하였다.

4) Paternity leave and family's health

아버지 육아휴직과 가족건강 간의 관계를 설명한 논문은 국외 논문 3편과 국내논문 1편으로 총 4편이었다. Chan 등(2017)에서는 아버지 육아휴직이 가정폭력(Involvement on intimate Partner Violence, IPV)을 낮추어 가족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Alio 등(2011)에서는 임신 기간 동안 사회적으로 아버지의 참여 장벽을 확인 후 이를 완화하

Table 1. Descriptive Summary of Studies Guided by Paternity Leave and Family Health

No	Author (year)	Country	Study design	Sample (n)	Factors	Major finding about paternity leave	Critique
1	Flacking et al. (2010)	Sweden	Longitudinal study	51,671 Fathers	Fathers' socioeconomic status Use of paternity leave	Paid paternity leave, may have beneficial effects on breast feeding up to 6 months of age. The father's infants, who didn't take paternity leave, were more likely to be weaned from breast-feeding. - At 2months (No paternity leave 10% vs. On paternity leave 7%) - - At 4 months (No paternity leave 21% vs. On paternity leave 16%) - At 6 months (No paternity leave 33% vs. On paternity leave 28%).	No mention of period of paternity leave. Research is needed according to socio-economic standards as it is decided whether paternity leave is allowed based on social and economic factors of the father.
2	Måns-dotter et al. (2010a)	Sweden	Longitudinal study	72,569 Fathers	Masculinity Paternity leave Mortality patterns	Paternity leave between 30 and 135 day decreased the risk of all case mortality (alcohol, suicide, other violent, CVD mortality). All-cause mortality (n=1367) - Paternity leave 0 days: n=727 (2.3%) - 1~10 days: n=197 (1.7%) - 11~30 days: n=152 (1.6%) - 31~60 days: n=97 (1.3%) - 61~135 days: n=122 (1.5%) - > 135 days: n=71 (1.9%)	Measurement of masculinity does not include individual personality The point of view of paternity leave varies according to culture.
3	Måns-dotter et al. (2010b)	Sweden	Longitudinal study	1,289 Fathers	Father's social characteristics Father's health characteristics	They privileged in terms of social and health characteristics are more likely to take paternity leave than other fathers. Proportion of fathers on paternity leave in socioeconomic position: - Education University education (51%) High school level (41.8%) Compulsory level (7.2%) - Income level High income (30.8%) Medium income (57.6%) Low income (11.7%) - Permanent employment (80.7%)	Research is conducted in Sweden, where parental leave is generous and easy to allow.
4	Chan et al. (2017)	Six Asia - Pacific countries* (Published in U.S.A)	Cross-sectional study	6,184 Fathers	Father involvement in delivery and child care IPV(Involvement on intimate Partner Violence) against women Paternal health	Presence at prenatal visits, taking paternity leave, and helping children with homework were associated with a reduced likelihood of IPV against women and better paternal health. Parent leave promotes gender equality in family and parents give this idea to their children.	Research participants are only developing countries. So Research can only be applied to developing countries.
5	Redshaw et al. (2013)	England	Cross-sectional study	4,616 Mothers	Understanding father's involvement during pregnancy and childbirth	Multiparous women whose partner took no paternity leave were significantly more likely to report depression. Feel depression at 3 month in multiparous women. - No paternity leave (44%) - Paternity leave 1~9 days (15.5%) - Paternity leave 2 weeks (25%) - More than 2 weeks (10.1%)	Short research period Questionnaire is not plausible Research is conducted only in the UK. (Research only can be applied in advanced country).
6	McClain et al. (2017)	U.S.A	Longitudinal study	1,275 Mothers and Fathers	Quality of parent relationship in marriage or cohabitation couple Father's role in parenting	Paid paternity leave makes father be encouraged and supported to take an active role in parenting. Paternity leave improves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s.	This research has cultural and policy limitations that support cohabitation.

*Bangladesh, Cambodia, China, Indonesia, Papua New Guinea, and Sri Lanka; † Dissertation.

Table 1. Descriptive Summary of Studies Guided by Paternity Leave and Family Health (Continued)

No	Author (year)	Country	Study design	Sample (n)	Factors	Major finding about paternity leave	Critique
7	Ko (2015) [†]	Korea	Qualitative study	10 Fathers	Understanding the nature of the child-rearing experience of fathers who took a paternity leave	Fathers made special precious memories with their children felt instinctive paternal love and consequently become more mature through paternity leave.	Difficult to generalization as a result of research. Limited number of cases (only 10 cases interview) No objective data
8	Yoon (2016) [†]	Korea	Qualitative study	4 Fathers and 4 Mothers	Understanding the experience of Fathers' parental leave and which meaning put their lives	Father can learn the difficulty of rearing and it can improve the relationship between partners for understanding and a sense of empathy through the rearing. Father with rearing vacation can be changed into mature father and it also exerts a sphere of influence to their children. Experience of paternity leave brings the driving forces for the gender equality as their father rears their children.	Comprises as data in subjective memory Participants have similar occupations. Excluding children's feelings from parent and child relationships. Need to follow up on researches of children who can communicate.
9	Alio et al. (2011)	U.S.A	Policy analysis study	-	Addressing the key recommendations, in policy to foster paternal involvement	Social policy revision is needed to foster paternal involvement.	Research carried out focused only on pregnancy period.

*Bangladesh, Cambodia, China, Indonesia, Papua New Guinea, and Sri Lanka; [†] Dissertation.

기 위해 소외된 계층을 위한 사회 정책 개정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Månsdotter 등(2010b)에서는 아버지 육아휴직을 쓰는 집단은 사회 및 건강 특성 측면에서 특권을 가진 계층이며,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사회적 저소득층 가정을 지원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Yoon (2016)에서는 아버지 육아휴직자들이 육아휴직을 통한 양육을 경험하며 배우자가 겪는 양육의 어려움을 체험하고, 이를 통해 부부 간의 상호 이해와 공감 을 바탕으로 부부 관계가 개선되었다는 답변을 확인하였다.

5) Paternity leave and gender equality

아버지 육아휴직과 성 평등 인식의 관련성을 설명한 논문은 국외 논문 1편이었다. Chan 등(2017)에서 아버지 육아 휴직을 비롯한 아버지의 양육에 대한 개입은 육아 스트레스를 줄이고 남녀평등과 가정 노동의 분배를 촉진하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부부 간의 만족과 안정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아버지의 양육 개입은 아들들의 성 평등 의 식 수용에 도움을 주고, 딸들의 자율성과 임파워먼트 획득에 기여함에 따라, 성평등 의식이 세대를 넘어 지속됨을 연구결과 로 확인할 수 있었다.

는 주제로 국내·외 연구 9편을 대상으로 조사하여 분석하였다. 유럽, 아시아, 아메리카 등 세계 각국에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는 최근 국내·외에서 아버지 육아휴직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현재까 지 이루어진 아버지 육아휴직 관련 연구를 보면 가족구성원 개 개인의 건강 차원에서 분석하는 경향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아버지의 육아휴직은 어머니의 모유수유율 증가, 우울증 감소, 육아 스트레스 감소, 아버지의 사망률 감소(All-cause mortality), 부성애의 눈뜸, 자녀 양육 활동 증가, 자녀와의 적극적 상호작용, 긍정적 부모-자녀관계 구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를 통해 아버지 육아휴직이 가족 구성원 개인에게 정신적, 신체적 건강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고 해석할 수 있었다.

가족 구성원 개개인의 건강을 넘어서 가족 전체의 건강이 나 사회에 미치는 영향으로는 아버지의 양육 참여(paternal involvement)를 증가시킴으로써 IPV (Involvement on intimate Partner Violence) 감소, 부부간의 상호 이해와 공감을 바탕으로 부부 관계 개선의 연구결과가 있었다(Chan, 2017). 한 편 Månsdotter 등(2010b)은 아버지 육아휴직을 쓰는 집단은 사회 및 건강 특성 측면에서 특권을 가진 계층으로 확인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소외 계층을 위한 사회 정책의 개정, 사회적 저소득층 가정 지원이 필요함을 명시하였다. 이를 통해, 아버지 육아휴직 사용의 어려움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관심과 인

논 의

본 연구는 최근 10년간 아버지의 육아휴직과 가족건강이라

식의 개선이 필요하며, 정책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또한 가족내 성 평등 정도, 출산 후 여성의 직장 복귀 등 객관적으로 수치화할 수 있는 지표를 사용하여 가족 기능을 측정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문헌고찰 결과, 아버지 육아휴직이 건강뿐만 아니라 성 평등 인식 제고에도 영향을 미치는 결과도 확인할 수 있었다. 육아휴직을 비롯한 아버지 양육 개입은 부모의 평등한 성 역할은 물론 세대를 이어 자녀들에게 성 평등 인식과 자율성 확립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남녀평등, 가정 노동의 분배 촉진, 자녀의 성 평등 의식 수용, 부모-자녀관계 및 부부 관계의 개선, 안정적 가정 이룸, 최종적으로 가족이라는 단위를 긍정적으로 강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에서 제시하듯, 아버지 육아휴직 사용은 미미한 상태이다. Figure 2를 보면, 아버지의 육아휴직은 어머니, 아버지, 자녀의 건강, 성 평등측면과 관련이 있다. 뿐만 아니라, 가족 구성원을 묶어 체계적(System)으로 보았을 때 가족 전체 건강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긍정적 영향에도 불구하고 육아휴직 사용이 미미한 이유는 육아휴직 사용에 따른 사회적 분위기, 육아는 여성의 몫이라는 인식, 성 역할 갈등 등의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어려움을 인식하고, 앞으로의 육아휴직 정책은 보다 성 평등의 방향으로 제정되어야 할 것이다. 여성의 경력단절을 감소시킬 수 있는 실제적인 정책과, 남성의 육아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정책이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정책들을 바탕으로 전체 사회의 인식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으며, 장기적 결과로 출산율을 제고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각 가족 단위의 건강뿐만 아니라, 전 사회의 역동성과 건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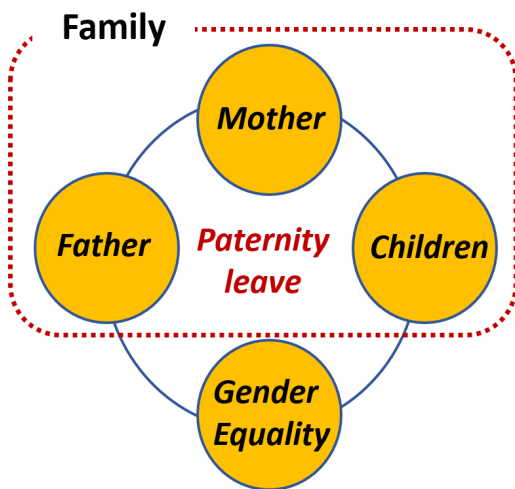


Figure 2. Researcher's view of paternity leave.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최근 10년간 국내·외 학술 문헌 중 아버지 육아휴직이 가족 건강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고, 우리나라에 적용할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그 결과, 아버지 육아휴직 가족 구성원 개인의 건강뿐만 아니라 체계적 관점의 가족건강, 나아가 성 평등 인식 제고에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문헌 선정 시 고찰한 문헌에 대해 질 평가를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아버지 육아휴직이 가족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총체적 관점으로 보는 기초자료를 제공했다. 또한 아버지 육아휴직과 체계적(system) 관점의 가족건강 연구 필요성과 나아가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를 통해서 다음 사항을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아버지의 육아휴직을 통해 가족의 건강에 대한 연구는 대상자들의 객관적 지표 보다는 주관적 지표에 의존한 연구에 치우친 경우가 많았다. 이에 아버지 육아휴직과 가족건강의 객관적 지표를 중심으로 한 활발한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는 아버지의 육아휴직이 가족 개인의 건강 중 아동의 건강과 관련하여 살펴보고자 하였으나, 아동이 직접 진술하거나 평가한 연구가 진행되지 않은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아버지 육아휴직을 실시한 가정의 아동을 대상으로 아버지 육아휴직과 가족 건강을 살펴보는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아버지의 육아휴직과 가족의 건강에 대한 국내 연구는 주로 아버지 육아휴직 중, 직후에 진행된 연구로 편향되어 있음을 관찰하였다. 이에 아버지 육아휴직 사용 후 가족 건강의 지속성을 살펴보기 위해 장기적 기간 및 관점을 바탕으로 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REFERENCES

- Alio, A. P., Bond, M. J., Padilla, Y. C., Heidelbaugh, J. J., Lu, M., & Parker, W. J. (2011). Addressing policy barriers to paternal involvement during pregnancy. *Maternal and Child Health Journal*, 15(4), 425-430.
- Chan, K. L., Emery, C. R., Fulu, E., Tolman, R. M., & Ip, P. (2017). Association among father involvement, partner violence, and paternal health: UN Multi-Country Cross-Sectional Study on Men and Violence. *American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52(5), 671-679.
- Eo, E. J., & Yoo, Y. J. (1995).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the scale for measuring family strengths.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13(1), 145-156.

- Flacking, R., Dykes, F., & Ewald, U. (2010). The influence of fathers' socioeconomic status and paternity leave on breastfeeding duration: A population-based cohort study. *Scandinavian Journal of Public Health, 38*(4), 337-343.
- Han, J. S., & Yoo, G. S. (2007). The effects of employees' gender role attitudes, job involvement, and family involvement on work-family balance.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25*(5), 143-166.
- Kim, E. S. (2012). Participation in father's involvement, the conditions to lead children to happiness. KICCE Police Brief, 4.
- Kim, E. J. (2013). Working mothers with preschool children recognize and intend to use work-family reconciliation policy? an analysis of the difference between time support policy and service provision policy. *Seoul Association for Public Administration, 24*(2), 617-642.
- Ko, G. Y. (2015). *Father's child rearing experience during paternity leave*. Unpublished master thesis, Kangwon National University, Chuncheon.
- Lee, J. H., & Kim, J. O. (2009). The influence of father's child rearing attitude on their children's social development and children's self-concepts. *Korean Association of Family Relations, 14*(3), 61-89.
- Lee, J. S., & Choi, W. S. (2011). A study on path of work-family reconciliation conflict of married working women. *Journal of Asian Women, 50*(1), 169-98.
- Lee, S. Y., & Lee, K. J. (2011). Analysis of the Korea women's parental leave usage pattern. *Ewha Journal of Social Sciences, 25*, 61-91.
- Lee, Y. J., Kim, A. R., & Lim, J. B. (2017). A study of paternal involvement in parenting and empowerment of paternal involvement.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20*, 317-331.
- Lee, Y. S., Park, E. M., & Heo, C. D. (2008). A study on attitudes toward paternity leave and child rearing activities: A study employees in Gyoungsangbukdo. *Korean Journal of Family Welfare, 13*(1), 25-45.
- Månsdotter, A., & Lundin, A. (2010). How do masculinity, paternity leave, and mortality associate?- A study of fathers in the Swedish parental & child cohort of 1988/89. *Social Science & Medicine, 71*(3), 576-583.
- Månsdotter, A., Fredlund, P., Hallqvist, J., & Magnusson, C. (2010). Who takes paternity leave? A cohort study on prior social and health characteristics among fathers in Stockholm. *Journal of Public Health Policy, 31*(3), 324-341.
- McClain, L., & Brown, S. L. (2017). The roles of fathers' involvement and coparenting in relationship quality among cohabiting and married parents. *Sex Roles, 76*(5-6), 334-345.
-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and Work Family Balance Assistance Act. (2016). Retrieved 28 May, 2018, from <http://www.law.go.kr>
- Redshaw, M., & Henderson, J. (2013). Fathers' engagement in pregnancy and childbirth: evidence from a national survey. *BMC Pregnancy and Childbirth, 13*(1), 70.
- Seo, S. W., & Lee, D. K. (2014). The effect of father's parenting participation on a child's social development: the mediation effect of mother's parenting stress. *The Journal of Korea Open Association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19*(2), 157-178.
- Statistics Korea, E-nation indicator: The ratio of dual-income households. Retrieved 26 May, 2018, from <http://kostat.go.kr>
- Won, S. (2005). Rhetoric or reality? "Practical" functioning of leave policies for maternity protection and childcare. *Korean Policy Studies Review, 14*(2), 157-189.
- Yoon, M. H. (2016). *A narrative inquire about parenting experience of father's: Focusing on the family on father's parental leave*. Unpublished master thesis, Myoungji University, Seoul.